

장규신, 제8대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취임



환경보전협회 제8대 사무총장에 장규신(59세·사진)씨가 지난해 12월 3일 승진·취임했다. 장규신 사무총장은 기업 환경업무의 개선·발전과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민과 관의 중차대한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장규신 사무총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경기대 법학과, 단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1981년 환경보전협회에 입사해 총무과장, 홍보부장, 기획홍보관리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환경부 그린라운드(GR)실무 자문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심의위원,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행정협의회 위원,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사무국장 등을 겸직하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복구 자원봉사 실시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인한 국가적 환경재난사태의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임직원 42명이 태안 기름 유출사고 복구 현장(충남 태안군 파

도리)에 참여하여 1차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방제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현장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협회에서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12월 15일에는 환경보전협회 장규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고교생과 대학생, NGO, 환경업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 128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태안 기름 유출사고 복구 2차 방제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닷가 갯벌에 유입된 기름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기름이 묻은 콩알만한 크기의 돌을 닦아내기도 하였고 닦아낸 한뼉뼉치를 옮기는 손길들도 분주하였다. 바닷가 마을인 파도리 골목길과 파도리 초등학교는 자원봉사자들의 차들로 빼곡하였다. 파도리 마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커피와 컵라면을 제공하는 마을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열띤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환경부 5대강유역환경지킴이와 환경보전협회 51명은 12월 21일 3차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환경부·환경보전협회

환경신문고(128번) 홍보물 공모전 결과발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민들이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속한 신고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128)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 공모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

표하였다. 「UCC영상 부문」과 「포스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에 김은정씨와 이도영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2007. 8. 1~10. 31까지 실시하여 총 658점(UCC영상 121점, 포스터 537점)이 출품되었으며, 대상 각 1점, 우수상 각 2점, 장려상 각 4명과 함께 UCC영상 부문에는 네티즌 선호도를 반영한 인기상 8점 등 총 22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보전협회 『국립생물자원관과 학교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연찬회』 개최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박종욱)과 환경보전협회에서는 2008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운영할 계획인 "교사연수인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방향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과 학교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연찬회』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일 개관한 동양 최대 규모이다. 생물자원관을 활용한 교사 연수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안, 서식지 생물자원의 국가관리 및 환경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제안, 사회 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연계를 통한 환경교육 발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분임토의를 통해 향후 생물자원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가 교사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관 및 수장고 등을 견학하였으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 견학도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보전협회 남한강유역 생태 · 문화탐방 실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강유역 개발 및 방지사업체, 한강수계 유관기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남한강유역 생태 ·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충주호까지 총 연장 820km에 이르는 지역의 생태 · 문화탐방을 통하여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민 · 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교환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부산시 지회, 『2008 환경시책 및 개정 폐기물관리법 해설 특별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 부산광역시지회(정병호 지회장)는 2008년도 환경시책 및 개정폐기물관리법 해설 특별교육을 지난해 12월 6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 류병순 환경보전과장이 부산광역시 환경시책과 2008년도 달라지는 환경행정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철수 부산환경출장소 팀장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담당자들 300여명이 참석하여 변경된 폐기물관리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및 2008년도 업무용 수첩을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광주 · 전남지회, 개정 폐기물관리법 해설 및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문덕형)는 지난해 12월 4일~5일 이틀간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회원사 및 배출업체 환경업무 담당자(부서장)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개정 폐기물관련법령 해설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김현철 계장이 개정된 폐기물관련법령에 대한 해설을 하였고 2008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지원팀 장준곤 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대전·충남지회 환경기술인 특별교육 실시



대전·충남지회는 지난해 11월 23일, 대전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내 회원사 및 주요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환경관계법규 및 행정실무해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에게 환경분야 행정실무 편람을 배부 하였다.

동 교육은 대전광역시청 자원순환과 이재면 사무관이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규 및 주요 행정실무내용 해설에 이어 충청남도 이재중 사무관의 개정 대기·수질환경보전법규 및 주요 행정실무내용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지회, 『동절기 대비 환경시설 관리요령』 및 『개정 폐기물관리법』 특별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교육사업과 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환경담당 임·직원 및 환경관련업체의 기술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4일과 16일, 20일 3회에 걸쳐 『동절기 대비 환경시설 관리요령』 및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경기도 3개권역 [경기도남부지역(수원상공회의소), 북부지역(경기도제2청사), 반월·시화공단지역(한국서부공단관리소)]으로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각 과정별, 지역별로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강사(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최영희담당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김교선과장, 경기도제2청 환경관리과 홍용담당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양정모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실무적인 강의로 300여명의 참석자에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에게는 교육교재 및 『폐기물관리법규집』을 제공하였다.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장 전수식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평소 환경분야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활동한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연말 환경부장관상 및 환경보전협회장상 표창전수식이 있었다. 충북대학교 하성룡 교수(환경부장관상), 선진물산 김주용 대표이사 외 11명(환경보전협회장상)이 각각 수상을 하였다.